

『바다의 성당』에 구현된 헤테로토피아의 공간적 성격*

임 주 인

(서울대학교 강사)

◆ 국문초록

푸코의 경계공간을 의미하는 헤테로토피아의 여섯 가지 특성에 따라서 『바다의 성당』에 등장하는 장소들이 갖는 상징성을 분석해보았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구성된 광기의 의미가 중세와 르네상스 각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살펴보고, 마녀사냥에 대상이 된 유대인과 여성들을 각기 중세기독교사회와 가부장적 사회질서로부터 일탈하여 전통을 위협하는 헤테로토피아의 이종적인 공간으로 이해한다. 종교재판소와 감옥, 성당의 지하납골당과 유대인 공동체 및 공개화형장은 종교적인 규율과 탄압, 성적인 일탈과 그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의미하고, 봉건귀족과 농노 간 및 왕정과 시민간의 이종성을 배태한 공간성이 소설의 내러티브에 역동성을 부여하면서,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신흥자본주의와 시민정신의 형성과정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해본다.

주제어 : 헤테로토피아, 광기, 푸코, 사이 공간, 마녀사냥, 유대인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B5A16076499)

1. 들어가는 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저서 『광기의 역사』(*Histoire de la folie*, 1961)에서 ‘광기’는 단순히 의학적, 과학적 기준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허경 2018:72). 푸코는 광기를 단지 병리학적 상태로 보지 않고, 이성의 역사와 밀접하게 얽힌 개념으로 탐구했다.

푸코에 따르면, 광기는 특정 시대와 문화에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권력과 지식의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한다(푸코 2003:94-95). 그는 광기가 근대 사회에서 고립되고 억압되는 과정을 비판하며, 광기를 단순히 제거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하나의 조건으로 바라보았다.

따라서 푸코의 관점에서 볼 때, 광기는 인간의 근본적인 경험의 일부이자 이성적 사고의 경계와 한계를 드러내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하겠다. 푸코는 광기를 중세, 르네상스, 고전주의로 분류하여 그 의미와 제재의 방식이 달랐음을 피력하면서 비도덕적인 광기가 하나의 부도덕, 나아가 사회 통제 및 관리의 측면에서 조명된 무질서의 표상이 된다고 하였다(푸코 2023:87).

미셸 푸코는 중세와 르네상스 시기의 광인의 의미를 다르게 설명한다. 중세에서는 광인은 사회에서 배제된 존재로 보았다. 광인은 도시 밖으로 추방되거나, 성문 근처에 유폐된, 떠돌이로 간주되었다. 푸코에 따르면 이 시기의 광인은 종교적, 신화적 맥락에서 이해되었으며, 신의 노여움이나 은총을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졌다(허경 2023:122). 광인은 사회적 축출의 대상이었지만, 동시에 영적인 통합의 가능성을 내포한 존재로도 간주되었다. 당시의 마녀가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반해서 르네상스 시대 광인은 문학과 예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광인은 인간의 내면적 결함과 허무를 상징하며, 도덕적 풍자의 대상으로 묘사되었다. 이 시기의 광기는 비판적 성찰의 도구로 사용

되었으며, 인간의 결합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허경 2023:79). 푸코는 광인을 기존의 이성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새롭게 조명하고, 역사적으로 광기가 단순히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구성된 개념임을 강조한다. 즉, 광인은 단순히 이성을 결여한 존재가 아니라, 특정 시대와 사회가 규정한 정상성과 비정상성의 경계에서 침묵당하고 억압된 존재였다.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 『바다의 성당』은 귀족과 시민, 봉건영주제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면서 뚜렷한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하는 시기를 그리고 있다. 이번 논문에서는 ‘성당’이 지니고 있는 상징성을, ‘경계 공간’의 의미를 지닌 푸코의 ‘헤테로토피아’라고 하는 개념과 접목시켜 해석해보고자 한다.

II. 헤테로토피아의 개념과 공간성

먼저 푸코의 ‘헤테로토피아’의 개념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헤테로토피아는 물리적인 공간인 실질적 공간이지만 동시에 현실 공간과 다른 긴장을 이끌어내는 심미적인 공간이다. 또한 균일한 관념에 의해 질서의 토대와 관계하는 일상공간이 아닌 이질적인 불균일한 상태로 존재하는 공간이다(푸코 1994:13). 헤테로토피아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것을 함께 위치시키므로 특정한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소위 일반적인 장소성에 반발하는 공간이고, “자기 이외의 장소들에 맞서 경계를 지우고 중화시키고 혹은 정화시키는” 탈근대적 공간으로 이해된다(푸코 1994:15). 그래서 특정한 관점이나 이데올로기에 의해 균일한 성격의 공간이 아니라 제도화된 사회 안에 속할 수 없는 “바깥의 공간”으로 자리한다(푸코 1994:14). 이 개념이 갖는 모호함이나 일부 모순점 등으로 인해 반론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헤테로토피아는 공간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극이 되는 개념임에는 분명하다. 특히, 근대적인 생각에 근간을 둔 ‘배제와 포섭’이라는 의미의 공간적 성격 즉, 특정 이념이 지배하는 공간을 넘어

그것에 도전하고, 일상의 공간 속 숨겨진 틈을 발견하여 새로운 통찰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을 탐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바다의 성당』에 등장하는 ‘성당’이 중세 봉건사회의 일상적인 장소성과 다른 공간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 성당은 푸코의 헤테로토피아라는 개념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작품에 나오는 ‘성당’은 봉건주의와 왕정체제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바깥의 공간”(푸코 1994:49)으로 신흥부르주아와 시민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바다의 성당』은 바르셀로나에 실제 존재하고 있는 성당인 동시에 소설/영화 속에서 봉건적 질서와 종교적인 규율을 뛰어넘는 공간으로 등장한다. 당시 페스트의 만연으로 인해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컸던 바르셀로나 주민들과 종교인, 정치가들은 기독교도와 유대인(이방인), 정통과 이단이라는 이분법적 종교적 규율 속에서 갇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 아르나우는 마녀사냥으로 쫓기는 유대인 아이들을 성당 지하 납골당에 숨겨서 기독교 폭도들로부터 저들의 생명을 구한다. 이처럼 성당의 납골당은 아르나우에게 있어서 이분법적인 종교적 이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성찰을 가능케 하는 배제와 포섭의 ‘헤테로토피아’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특수한 이데올로기에 포섭된 균일적 공간이 아닌, “바깥의 공간”으로 설명될 수 있는 헤테로토피아의 특징에 따라 성당의 공간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1. 헤테로토피아의 공간성에 따른 성당의 공간성

1-1. 일탈과 위기, 그리고 명멸성

푸코의 헤테로토피아의 특성에는 다음의 여섯 가지 원리가 있다.

첫째, ‘일탈’과 ‘위기’의 헤테로토피아는 평소엔 들어갈 수 없거나 제한된 곳이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개인에게 특별히 허용되는 공간 즉, 평

소에는 닫혀 있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 잠시 열리는 특별한 장소라고 볼 수 있다(푸코 1994:15). 위기의 헤테로토피아는 원시사회에서 특권화 혹은 신성시된 장소로 생물학적 위기를 겪는 개인을 위한 공간으로 출산을 기다리는 여성을 위한 집 등이 이에 속한다. 반면, 일탈의 헤테로토피아는 사회적, 종교적 규정으로부터의 일탈을 일삼는 자들을 위한 장소로 정신병원 또는 감방 등을 들 수 있다.

『바다의 성당』에서 성당의 납골당은 위기 시에 유대인 아이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신성시된 장소였고, 유대인의 공동체는 기독교도들에게는 비정상적인 일탈로 비춰지던 이방인들을 기독교도들로부터 격리시키던 장소였다. 한편, 엘레디스나 프란세스카 같은 창녀들이 거처하던 사창가나, 간통을 의심하는 남편 폰스로 인해서 격리당한 채, 짐승같이 살아가야 하는 조아네프의 어머니, 조아나의 헛간은 가부장적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여인들을 순종적인 여인들로부터 배제, 격리시키려던 목적과 함께 가부장적 사회질서로부터 일탈한 이들에 대한 징벌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술 장수 폰스가 조아나의 애인을 어떤 식으로 결판을 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대장간에서 힘든 일로 단련된 술 장수 폰스와 사랑에 빠진 연약한 젊은이의 결투에 하느님의 중재는 존재하지 않았다. 판결은 우사뜨헤에 따랐다. [...] “선고하노니 폰스는 조아나를 데리고 가려거든, 조아나에 대한 적절한 주의와 안전을 위해 집에다 길이 열두 뿔, 너비 여섯 뿔 크기의 공간을 만든 다음, 바닥에 깔 충분한 양의 짚단과 잠잘 때 덮을 모포 한 장을 제공하고, 언급한 장소에 생리적 현상을 처리할 구멍 하나와 끼니를 넣어줄 창문을 내야 한다.(팔코네스 2007: I, 113-114)

우사뜨헤의 판결에 따라 만들어진 헛간은 푸코의 “총괄적이고 가시성의 효과로 작용하는 권력의 도해”로서 위계질서화한 감시의 장소라고 볼 수 있다(미셸 푸코 2016:270). 폰스를 배신하고 가부장적 질서를

이탈한 조아나는 우사뜨헤 판결에 따라서 끼니와 생리적 현상을 같은 공간 속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짐승 우리 같은 헛간에서 아들 조아네 뜨만을 기다리며 살아간다. 그러나, 조아나는 악취 풍기는 헛간에서 웅크린 채 죽어갔는데,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아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듯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조아나는 간통으로 인한 일탈로 죽음의 순간에까지 죄책감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둘째, 헤테로토피아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거나 사라질 수도 있다. 즉, 어떤 공간이나 개념이 처음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일반적인 공간으로 흡수되거나 없어질 수도 있다거나 독특한 공간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변하고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는 반대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고 있던 헤테로토피아가 생겨날 수 있다. 서양에서 18세기 도시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던 묘지가 무신론적 사고로 인해 마을 경계로 밀려나게 되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

『바다의 성당』에서 발렌시아 음유시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연대기에 맞추어 텐을 광장에 모인 구경꾼들을 모아 즉석 연극을 공연한다. 이러한 텐율이 바로 명멸하는 헤테로토피아의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소는 후안 고이피솔로의 『막바라』에 등장하는 광장처럼 신분과 종교와 직분과 상관없이 한데 어우러져서 방랑시인의 곡조에 맞추어 허구의 세계를 창조해내다가, 연극이 끝남과 동시에 사막처럼 사라져버리는 신기루와 같은 장소이다.

그때부터 이야기는 까탈루냐인들의 피비린내 나는 보복과 트라시아, 칼시디아, 마세도니아, 테살리아 같은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장면으로 이어졌다. 관객들은, 아니 바르셀로나 시민들은 음유시인이 지명을 언급할 때마다 만면에 웃음을 띠며 기뻐했고, 몇몇 사람은 후렴구를 따라하듯, ‘까탈루냐인들의 목수에 괴로워하리라!’라는 외침을 되풀이하기도 했다. 관객의 호응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다. 돌격대들이 아테네 공작령에 입성하자 관객들 역시 그 장면에 참여했다.(I, 331-332)¹⁾

한편, 종교적으로 이단을 구별해내는 악명 높았던 종교재판소는 가톨릭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창조된 ‘피의 순수성’ 신화의 결과물이었다. 『바다의 성당』에서 아르나우는 마녀의 아들이라는 혐의로 종교재판관의 심문을 받고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처럼 종교재판소는 마녀와 무슬림, 유대인과 부랑아와 같은 비주류의 이질적이고 일탈을 꾀하는 이들의 처벌 장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피의 순수성’의 신화가 시대착오적인 구시대의 유물이 되면서 종교재판소는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이 사라져버렸다.

『바다의 성당』 2부에서 바르셀로나에 존재했던 유대인 공동체는 유대인들이 성체를 훼손했다는 소문으로 패쇄되어 배설물과 쓰레기로 뒤덮이게 되고, 그 속에서 유대인들은 기독교도들에게 포위당한 채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다.

모든 유대인들이 감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구역은 사람들로 우글거렸다. 검은 사제복을 입은 무리들이 유대인들의 집을 돌아다니며 피를 흘리는 성체를 찾고 있었다. [...]

‘모든 게 엉망입니다. 아르나우, 최악이에요. 젊은이들은 참을 수 있지만 문제는 아이들이요. 음식은 고사하고 물조차 마시질 못하고 있소.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애들도 꽤 있는데, 애 엄마들 젖이 떨어지면..... 그것만이 아니요. 생리적인 문제까지 봉착해 있으니.’

유대인 구역의 거리마다 집 밖으로 꺼낸 가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 그들은 그날 오후에 만날 예정이었다. 사람의 목숨이 얼마인가. 5천 명의 목숨 아닌가. 모든 종류의 상품들을 거래한데다가 노예들의 몸값까지 알고 있었지만 친구 하스다이의 몸값은 알 길이 없었다.(Ⅱ, 234)

15~16세기 스페인의 유대인들은 기독교도로부터 철저하게 배제, 격

1) 이 페이지 이후로 『바다의 성당』의 본문을 인용할 때에는 괄호 안에 페이지 수만 써서 표시하고자 한다.

리당하여 직장이나 결혼 등에 많은 제한을 받았다. 그로 인해 유대인들은 당시 교황이 기독교도들에게 금하고 있던 고리대금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르네상스 시기 유럽 각지로 추방당한 유대인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신흥자본주의의 기초를 닦게 된다. 『바다의 성당』에 등장하는 아르나우는 비록 기독교도이지만, 종교적으로 금지되어 있던 고리대금업에 뛰어들어 유대인들처럼 부르주아로 성장하게 된다. 페드로3세의 조카 엘리오노르의 모함으로 종교재판을 받는 등 목숨이 경각에 놓이게 되지만, 시민군과 농노의 해방이라는 자본주의 경제질서에 노출된 바르셀로나 시민들에게 그는 더 이상 경계공간에서 일탈한 이방인이 아니었다. 바르셀로나 시민군이 아르나우의 석방을 위해 ‘비아포라’를 외치며 폭동을 일으키는 과정에 종교재판소의 창문이 깨어지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는 종교재판소가 더 이상 그 존재의미를 상실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조아네뜨를 비롯한 종교인들과 영주와 몰락한 귀족들이 아르나우를 종교재판을 회부하고자 애썼던 이유는 무너져가는 봉건제와 절대군주제 신봉자들이 유대인과 결합된 신흥자본주의자들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은 이미 현실이 되었고, 아르나우의 환전업을 도와준 무슬림 출신의 기염은 전쟁으로 파탄에 이른 왕실에 대출해준 1만 파운드의 돈을 상환 받지 않고, 아르나우의 장부에 기재된 막대한 왕의 대출금이 교황의 손에서 처리되기 전에 말소시킨다는 조건으로 아르나우를 석방시킨다(Ⅱ, 368). 결국, 종교재판소는 왕실의 자금줄을 쥐고 있는 아르나우 앞에서 그 존재감을 지켜내지 못하게 된다.

1-2. 양립불가능성과 시간의 분할성

셋째, 헤테로토피아는 서로 다른 공간들이 한곳에 겹쳐져 공존하는 특별한 장소로 영화관과 정원을 예로 든다. 푸코는 영화관이 스크린이

라는 평면적인 공간에 삼차원의 공간을 비취낸다는 점에서 양립이 불가능한 복수의 공간을 만들어낸다고 보았고, 정원도 자연을 담고 있지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곳이라는 복수 의미를 띠다고 보았다. 이처럼 서로 다른 성격의 공간들이 함께 있는 것 즉, 한 공간 안에 여러 가지 세계가 공존하는 곳이 ‘헤테로토피아’이다(푸코 1994:18-19). 『바다의 성당』에서 아르나우가 엘레오노르와의 결혼하여 남작의 귀족 작위를 얻게 된 아르나우는 자신의 영토 안에 소속되어 있는 농노들을 모두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토지를 주어 경작하게 한다. 이로 인해 남작의 영토에서 살고 있는 농노나 소작농은 더 이상 영주와 농노라는 중세의 봉건적 장원제를 따르지 않고, 독립하여 자신의 영토를 경작하여 소출을 내는 자영농이자 자유인으로 직분이 바뀌게 된다.

‘그대들 부모의 피와 땀으로 정복된 까말루냐 지방의 열아홉 곳 모든 곳의 소작농들은 동등한 신분이 될 것이다. 그대들은 자유인이다! 그대들 소작농들은 더 이상은 소작농이 아니다. 이 땅에서 그대들은 다시 대지의 종이 되지 않을 것이며, 그대들의 자식들, 그대들의 손자들까지도 다시는 이 땅의 종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대들의 어머니들 역시 다시는 종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 아르나우는 주민들이 환호하기 전에 연단을 벗어나야 했다. 조안이 혼자 걷기조차 힘든 엘리오노르를 부축했다. 연회석과 들판에 모여있던 귀족들과 소작농들이 아르나우와 그 일행이 성채 쪽으로 사라지면서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했다. 귀족들은 화를 식이지 못한 채 짐승을 거칠게 다루는 바람에 소작농들이 짐승의 발굽에 치이지 않도록 허둥지둥 길을 내주어야 했다(Ⅱ, 158)

여기서 아르나우는 농노의 아들의 신분에서 시민군의 수장이자, 고리대금업을 하는 바르셀로나 상공인 대표로, 그리고 뻘드르3세의 피후견인 엘리오노르와의 정략적인 결혼으로 맺어진 귀족이라는 복잡한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러한 아르나우의 복수적 정체성을 통해 『바다의 성당』

에 등장하는 ‘대지’가 지닌 복수적 의미를 은유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아르나우가 농노의 신분이었을 때에는 소작농과 농노, 그리고 봉건 영주와 귀족이 위계질서에 의해서 분리된 공간 속에 살아가지만, 아르나우가 토지 개혁을 실시한 이후, ‘대지’에 살고 있는 소작농이나 농노들은 더 이상 대지의 종이 아니었다. 따라서 농노와 귀족 등 신분적으로 공존이 불가능해 보이는 ‘대지’는 자유인으로 동등한 신분을 지닌 농민들과 귀족이 공존하는 복수적 공간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넷째, 시간의 독특한 분할과 관련된 헤테로토피아를 들 수 있다. 여기에는 박물관과 도서관과 같이 시간을 정지하거나 무한하게 누적하는 개념인 ‘영원성의 헤테로토피아’와 시장이나 휴양지처럼 일정 기간 동안만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 즉, 특정한 시간 동안만 색다른 분위기와 경험을 제공하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는 뜻으로 “잠시 동안만 특별한 세계로 떠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뜻이다(푸코 1994:20-21). 『바다의 성당』에서 건축물인 ‘바다의 성당’은 엄격한 가톨릭 윤리와 왕권이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던 14세기, 스페인을 배경으로 왕과 교회가 권위를 내세워 가장 높고 가장 화려하고 웅장했던 성당을 건축할 때를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이 성당 건축에서의 특징은 민중들이 나서서 현금 대신 노동력을 바쳐가며 정성 어린 그들만의 성당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병어리처럼 말이 없는 세바스티아와 그의 아들 바스피아네뜨, 그 밖에도 빠레, 하우메 등 수없이 많은 짐꾼들.....그들은 리베라 구역의 짐꾼으로 일하면서 틈틈이 로까에 있는 왕리 채석장부터 산따 마리아 성당까지 새로운 성당 건축에 필요한 돌들을 날랐고, 그 일을 자신들의 진솔한 신앙으로 받아들였다. 아르나우는 짐꾼들과 그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무거운 돌을 등에 지고 활처럼 흰 자세로 걸어오는 그들을, 돌을 나른 다음에 흐뭇하게 웃는 그들을, 돌을 짊어진 등에 거칠게 드러나는 자국을.....그리고 그들이 그들만의 성모님을 누구보다 잘 모시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I, 141-142)

어린 아르나우와 조아네프가 성당의 주춧돌을 옮기는 짐꾼들에게 마시는 물을 나르는 것으로부터 몸소 돌을 지어다 나르는 청년시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신흥부르주아를 대표하는 상공인 대표 아르나우로 ‘바다의 성당’을 위한 기부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참여로 완성된 ‘바다의 성당’은 바르셀로나의 시민의 자취와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영원성을 표상하는 헤테로토피아이다. 영원성을 표상하는 장면은 아르나우가 바다의 성당의 봉헌 미사를 드리기 위해 그의 아들 베르나프를 데리고 나타나는 마지막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불길 속에 몸을 던진 변민에 휩싸인 사제 조안의 모습보다는 그와 함께 세상에 눈을 떠던 어린 아우의 모습을 기억하고 싶었다.

[...] 아르나우는 가만히 아들에게 기댔다. 피곤했다. 그의 나이 예순세 살이었다. 어린 베르나프가 아르나우의 팔을 꼭 붙잡자, 아르나우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끌어당기면서 성모 조아나를 가리켰다. ‘아들아, 웃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Ⅱ, 435-436)

아르나우가 어린 시절에 바다의 성당이 건축되는 현장을 지켜보면서 누군가가 “일반 성당과는 다르다”(Ⅰ, 125)는 얘기를 듣게 된다. 일반 성당과 달리 이 성당은 “귀족들이나 시에서 돈을 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민들이 돈을 내고 우리 도시민들이 직접 짓고 있다”(Ⅰ, 125)고 말한 사내는 바위를 등에 지고 나르고 있었다. 베르나프가 처형당한 뒤, 사제는 어린 아르나우를 결사체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회원들과 함께 자신의 몸체만한 바위를 지고 나르며 성당 건축에 참여하였다. 1383년 11월 3일 성전이 완성되는 날, 아르나우는 아들 베르나프에게 임명의 시민들에게 바치는 건축위원회의 문장을 가리키며 “이 성당은 시민들의 성당이다. 무수한 사람들이 이 성당을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그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단다”(Ⅱ, 435)라고 하면서 왕립 채석장에서 산파 마리아 성당까지 돌을 짊어지고 나르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어린 아르나우에서 노쇠함을 느끼는 예순 세 살, 아들 베네디

뜨와 함께 봉헌미사를 드리기까지 산파 마리아 성당이 존재하는 한, 이 성당이 시민들에 의해서 건축되어졌다는 사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1-3. 열림과 닫힘의 고립 및 환상과 보정의 공간

다섯째, 헤테로토피아는 주변 환경과 분리되면서도 독특한 방식으로 열리고 닫히는 특징을 가진 공간으로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지 않지만, 특정한 규칙이나 조건에 따라 접근이 제한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종교의 정결 의식을 따르거나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승락을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군대나 감옥, 그리고 배제와 관련된 공간이다. 이러한 헤테로토피아는 바깥 세계에 닫혀있지 않고 전면적으로 열려 있는 장소로 남미의 가옥을 이에 비유한다(푸코 1994:22-23). 이 가옥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 보이지만, 실지로는, 내부로의 자유로운 진입이 허락되지 않고 철저하게 외부로 비껴있는 공간이다.

『바다의 성당』에서 조아네프의 어머니가 감금되어 있는 (2m 길이의) 작은 헛간은 문이 있는 헛간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열림과 닫힘의 체계를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창을 통해 아들 조아네프와 소통할 뿐, 실제로는 남편의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들어가거나 나올 수 없는 지하 감옥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다(113). 또한, 평생을 철저하게 외부에 위치하도록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창녀촌이 등장한다. 창녀촌을 전전하는 프란세스카는 원래 한 남자의 건실한 아내였지만, 농노라는 비천한 신분 때문에 초야를 영주에게 바치는 악법에 희생된 비참한 여인이었다. 프란세스카의 아들 아르나우가 어머니에 대해서 물었을 때의 베르나프의 대답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아버지’ 아르나우가 물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어요? 아버지는 왜 제게 한 번도 어머니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주길 원하는냐? 베르나뜨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술 처먹은 귀족에게 순결을 빼앗기고 말았다고? 베에라 영주의 성지에서 몸을 파는 여자가 되었다고.....?

‘네 어머니는.....’ 마침내 그가 대답했다. ‘운이 없었던다. 아주 불행한 일이었지.’

아르나우가 코를 훌쩍거렸다.

‘절 예뻐하셨어요?’ 아이가 목이 잠긴 소리로 물었다.

‘널 낳다가 죽어서 그럴 기회도 없었던다.’(I, 114)

창녀들은 외부 세계로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은 성병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검사와 감시를 받아야 했고, 가부장적 사회질서와 도덕적인 일탈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감시당하고 격리되었다. 이는 당시 중세 기독교 사회의 가부장제에서 비롯된 남녀 간의 불평등을 보여줄 뿐 아니라, 엄격한 도덕률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남성의 일탈적인 욕망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여섯 번째는 ‘환상’과 ‘보정’의 공간으로서의 헤테로토피아이다(푸코 1994:24-26). 헤테로토피아는 본질적인 성격인 이의제기의 두 가지 방법으로 환상의 헤테로토피아와 보정의 헤테로토피아가 제시된다. 환상의 헤테로토피아는 현실과는 다른 특별한 공간으로 일상의 공간과 구별되며, 현실의 규칙과 질서에서 벗어나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는 곳이다(푸코 1994:26). 따라서 유토피아처럼 완벽한 세계를 꿈꾸게 하거나, 반대로 현실보다 더욱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연출해서 현실을 낯설게 느끼도록 하는 공간일 수도 있다. 『바다의 성당』에서 축제가 벌어지는 열린 공간이 이에 해당된다. 여기서 발렌시아 출신의 음유시인은 라몬 문파네르의 연대기를 실감나게 읊조리고 모인 무리들을 배우로 삼아 연극을 즉석에서 연출한다. 연대기에 따르는 연극에 참여한 아르나우와 엘레디스는 연극 속에서 각각 아테네 공작령의 여자와 카탈루냐 남자가 되어 부부가 되는 환상 속으로 들어간다. 한편, 보정의 헤테로토피아는 오히려 현실이 무질서하게 보일 만큼 철저한 계획과 계산을 통해 완벽하고

정돈된 현실의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작품 속에서 보정의 헤테로토피아가 나타나는 곳은 엘리오노르의 집이라고 볼 수 있다. 엘리오노르는 남편인 아르나우가 소작농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그를 무시하고, 아르나우가 소작농과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영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려들자, 그를 암살할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아르나우의 암살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의 아이를 갖은 뒤, 그를 죽여 상속을 받아 내려는 음모를 꾸민다. 그러나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 아르나우 때문에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아르나우가 사랑하는 마르를 납치하여 겁탈하게 한 뒤, 마르를 그녀의 강간범과 결혼시키려는 계획을 세운다.

‘나는 짐승이나 다름없는 나의 행위에 대한 그대들의 처분을 달게 받겠지만, 만의 하나 여러분이 기회를 준다면 영예로운 기사로서 마르를 아내로 삼아 평생 사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아르나우, 그것은 본인이 원하는 바를 따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조안이 낮은 음성으로 조언했다. ‘그러니 받아들이시지요. 이 경우는 딸자식이나 피후견인의 의견을 요구하지 않고, 당사자들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더욱이 저자는 이미 마르와 잠자리를 가졌기 때문에 마르가 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사뜨헤의 법령²⁾에 따릅니다.’(Ⅱ, 197)

-
- 2) “우사뜨헤(Usatge)”는 중세 스페인, 특히 카탈루냐 지역에서 사용된 법률 및 관습을 의미한다. 이는 카탈루냐의 법적 전통을 형성한 중요한 요소로, 지역 사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온 관습법을 체계화한 것이다. 이러한 법률은 주로 봉건적 관계와 관련된 규정으로, 영주와 농민 간의 의무와 권리, 토지 소유권, 세금 및 기타 사회적 규범을 다루었다. 특히, “Usatges de Barcelona”는 11세기부터 12세기 사이에 바르셀로나 백작에 의해 편찬된 법률 모음집으로, 카탈루냐 지역의 법적 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법률은 당시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맥락을 반영하며, 봉건적 질서와 지역 자치의 조화를 이루는 데 기여했다. Viquipèdia에서 우사뜨헤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들은 중세 카탈루냐 지역의 관습법과 법적 전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추가적으로, “Usatges de Barcelona”는 카탈루냐 법 체계의 기초를 형성한 중요한 법률 모음집으로, 로마법과 서고트법, 그리고 종교적 규율을 통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유대인 하스다이가 처형되는 순간, 엘리오노르는 아르나우가 하스다이의 딸 라겔을 위로하는 장면을 포착하여 아르나우와 유대인과의 연관성이 있음을 트집잡고 그를 종교재판에 회부한다. 엘리오노르가 이 모든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 아르나우가 가장 신뢰하는 조아네뜨를 사주하게 되고 마침내 조아네뜨도 이 사실을 알게 된다.

조아네뜨는 그녀를 향해 등잔불을 던졌고, 그 불은 그녀의 사치스러운 옷에 닿자마자 그대로 옮겨 붙었다. 엘리오노르가 비명을 질렀다. 노인 뼈레가 큰 소리로 노예들을 부르며 그녀에게 다가갔을 때 그녀의 몸은 이미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처럼 변해 있었다. [...] 조아네뜨는 불길에 휩싸인 채 무릎을 꿇고 있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Ⅱ, 430)

아르나우를 몰락시키고자 하는 그녀의 모든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자신이 엘리오노르에 의해서 이용당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조아네뜨는 엘리오노르를 찾아가 자신과 그녀를 단죄하는 의미에서 방화를 저지르고 그녀와 함께 불타죽는다.

“불길 속에 몸을 던진”(Ⅱ, 435) 조아네뜨와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처럼 변해”(Ⅱ, 430) 버린 엘리오노르의 몸, 그리고 “불길에 휩싸인 친구”이자 “피에 젖은 채로 타오르고 있는”(Ⅱ, 245) 유대인 하스다이의 몸, 그리고 “불길에 휩싸인 (베르나뜨)의 시신”(Ⅰ, 242)은 ‘불길’에 타오르는 육신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는다. 여기서의 ‘불’은 마녀의 처형에 사용되던 화형을 연상시킨다. 마녀사냥에서의 불은 죄와 영혼을 정화시킨다는 종교적 의미와 함께 극도로 잔인하고 공개적인 처형방법인 화형을 통해서 군중들에게 공포심과 경각심을 준다는 의미가 있다. 푸코는 권력과 형벌관계에 있어서 군주가 중세시대, 형벌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공포감을 주고자 했고, 근대에 들어와서 감시를 통해서 사람을 통제하고, 사회를 규율하고 교정하게 되었다고 했다(푸코 2023:9-10). 푸코의 형벌관계와 관련지어 화형의 의미를 살펴보면 하스다이의 화형은

빼드로3세 시대 기독교도들에게 있어서는 반유대주의 정서에 따른 마녀사냥에 해당되지만, 주인공 아르나우의 시각에서 하스다이는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서 스스로를 버리는 제단 위의 희생 제물이었다. 베르나프도 귀족들의 배급 부정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켰다가 희생된 부패한 권력층의 희생양이었다. 그에 반해서 엘리오노르는 비록 그 사회의 귀족이자 권력층에 속하지만 조아네프 신부의 관점에서 엘리오노르는 사탄과 영혼을 통하는 마녀와 같은 존재였고, 신부는 그녀를 상대로 마녀사냥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경계인의 공간으로서의 헤테로토피아

2-1. '바깥의 공간'에 자리한 마녀사냥의 광기

중세 유럽인들의 생각 속에 '마녀'는 애초에는 사악하지 않았다. 공동체 내에서 출산이나 질병 치료 같은 의료 기능을 담당하거나 점을 치고 묘약을 만드는 주술적 기능을 수행한 자들이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을 지닌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졌던 그들은 중세 말, 악마와 놀아나면서 신앙을 해치고 공동체에 해악을 일으킨다고 낙인찍히기 시작했다. 14세기부터 불어 닥친 유럽의 '마녀사냥'은 17세기까지 대략 20만 명~50만 명의 사람들을 처형대에 올렸다.

중세를 배경으로 한 작품 『셀레스티나』와 구티에레스의 『방랑시인』에 등장하는 마녀는 신령한 능력을 지닌 자로서 전자의 작품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이어주는 묘령의 능력을 지닌 여인으로 묘사되고, 후자에서는 저주를 통해 병에 걸리게 하기도 하고 목숨을 잃게도 하는 마력을 지닌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다. 『바다의 성당』에서 아르나우의 어머니, 프란세스카가 소유하던 바예라 영주의 아들이 발작을 하자, 프란세스카가 영주의 아들에게 저주하여 수전증이 걸리게 되었다고 그녀를 마녀로 몰아세웠다.

하우메 데 베에라와 헤니스 뿌익이 눈짓을 교환했다.

‘몰락이 시작된 거로군.’ 헤니스가 중얼거렸다.

‘나에게 젖을 먹었던 창녀를 찾도록 하고.’ 바에라 영주가 장교에게 지시했다. ‘그녀를 잡거든 성태의 지하 감옥에 가두어라!’

‘빌어먹을 악마가 씌워진 그녀의 젖은 내 것이 아니라, 그녀의 아들인 아르나우 거였어. 그놈이 돈을 쓰고 왕의 편애를 받는 동안, 나는 그놈의 어미가 옮긴 악에 감염된 채 무지막지한 고통을 겪었던 거지.’

하우메 데 바에라는 그가 겪고 있던 간질 발작이 악마의 저주로 간주되는 것을 막고자 주교를 찾아가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재판소는 프란세스카에게 악마가 씌웠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일은 없었던 것이다.(Ⅱ, 253-254)

뿐만 아니라, 프란세스카가 마녀로 몰린 상태에서 아르나우를 마녀의 아들이라는 혐의를 씌워 종교재판에 회부되는데, 이는 중세 말, 마녀사냥 등 마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만연했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결국 아르나우는 시민들의 저항으로 풀려나고, 프란세스카 역시 풀려나지만, 아르나우를 떠난다. 한편, 그녀를 쫓아가 죽이려는 군사에게 프란시스카는 마녀의 신력을 발휘해서 그를 저주할 것이라는 협박한다. 겁에 질린 군사는 그녀를 해치지 못하고 풀어주게 되는 데, 이는 마녀에 대한 당시의 통념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당시에 마녀들은 겉보기는 노파나 여인, 혹은 이방인의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었지만, 남녀노소, 신분여하를 막론하고 악마와 계약을 맺어 얻은 힘으로 재앙을 내리는 존재로 믿어져 왔고, 이런 믿음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했다. 프란시스카를 마녀로 간주하고 죽이려고 했던 집행과 소속 병사가 프란시스카의 저주에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마녀를 포함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힘을 두려워하는 남성들의 두려움이 무의식중에 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녀는 칼에 죽지 않아.’ 그녀가 차분하게 경고했다.
순간 병사의 손에 쥐어져 있던 칼이 부르르 떨렸다. 마녀가 방금 무슨 말을 했지?
‘오로지 타오르는 불이 마녀의 죽음을 정화할 수 있으니까.’
그게 사실이란 말인가. 집행관 병사가 동료들의 도움을 구했지만 그들은 뒷걸음질을 쳤다.
‘만일 칼로 나를 죽이면, 내 평생 너를 쫓아다닐 것이다. 평생!’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노파의 연약한 몸에서 저토록 찌렁찌렁한 말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반드시 네놈들을 추적할 것이다. 네놈들의 아내와 자식들, 내 자식들의 자식들까지, 그 자식들의 아내들까지 말이다. 네놈을 저주하리라!(Ⅱ, 395-396)

이처럼 마녀사냥의 기저에는 남성의 전유물로 간주되던 이성적 언어가 여성에게서 발휘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성의 언어를 지배하고자 하는 남성들의 욕구가 깔려있다. 『바다의 성당』에서 마녀사냥으로 희생당하는 것은 마녀만이 아니었다. 유대인은 페스트가 창궐할 때 우물에 독을 타서 페스트를 퍼지게 했다는 소문과 함께 성체를 훼손했다는 소문 등으로 스페인에서 추방당하거나 처벌받는다.

‘하지만 부활절에 너희 민족은 어린 가톨릭교도를 희생자로 삼고, 유대 예법에 따라 희생자의 심장과 팔다리를 먹는단데.’
라켈이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 ‘그럼 성체는? 다들 그렇게 말하잖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문하고 고통을 되살리기 위해 성체를 흠친다고 말이야.’
‘우리 유대인은 믿지 않아요. 그 성체..... 그 성체화는 말이예요. 가톨릭교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성체 상태로 있고, 성체는 그리스도의 육신을 의미하지만 우리 유대인에게 가톨릭교의 성체는 단순한 빵 조각에 지나지 않는데, 그런 우리가 빵 조각에 지나지 않은 것을 고문한다면 모순일 거예요.’ 그녀의 눈망울에서 머릿 속 깊이 박

힌 선입관, 즉 유대인 공동체와 그들의 신앙을 멸시하는 해묵은 편견이 사라졌으면 하는 애뜻함이 담겨 있었다.(Ⅱ, 40)

푸코는 중세시대 광인을 사회에서 배제된 존재로 보고, 특정 시대와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서 침묵당하는 존재로 보았다. 이러한 푸코의 시각에서 볼 때, 『바다의 성당』에서의 마녀와 유대인의 이미지는 사회로부터의 격리와 추방을 강조한 중세 말에서 르네상스 시대에 걸친 광인의 이미지에 가깝다고 하겠다.

이 시기에 페스트로 인한 민중들의 분노가 중앙 집권층에게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유대인이나 집시 등을 마녀로 삼아 마녀사냥의 희생물로 삼았다. 스페인인들은 이들 유대인이나 집시를 영험한 능력을 지닌 광인으로 보았다기보다는 전통과 질서를 해치는 반전통적이고 비윤리적인 추방의 대상으로 삼았다. 질병으로 인한 상실감과 분노, 두려움과 경제적인 피해함 속에서 유대인들은 마녀로 몰리게 되었고, 사회 활동에 제약이 컸던 그들은 유대인 커뮤니티 안에 갇혀서 격리되고 감시당한다.

아르나우는 자신을 구해준 유대인 공동체를 구해주기 위해서 애쓰다가 유대인으로 몰려서 함께 종교재판에 회부되었다. 당시 유대인들은 왕실이 필요로 하는 전쟁의 자산을 고리로 빌려주는 자금줄이었기에 이들의 재산을 몰수하고자 하는 이유로 종교적인 명분을 내세웠고, 유대교를 신봉한다는 이유로 마녀사냥에 회부되었다.

유대인 추방은 1391년 유대인 박해와 마찬가지로 종교적 광기와 전쟁 후유증으로 불거진 사회적 불안이 크게 작용했다. 이완된 민심을 수습하고 신앙심 깊은 왕실로 권위를 회복하여 국가의 위신을 세우려는 의도 속에 제시된 종교적 단일화는 표면적 이유일 뿐 그 뒷면에는 경제적 이유가 도사리고 있었다. 유대인의 재산을 몰수하여 전쟁으로 바닥난 국고를 메우기 위한 조치였다.(홍익희 2016:45)

신흥귀족세력이 강했던 카탈루냐 지방에서 유대인은 봉건주의에서 신흥자본주의로의 강력한 견인차가 되었고, 자본주의로 인해 몰락하게 된 구기독교도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다. 카탈루냐 지방은 예로부터 유대인과 같은 이교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종교적인 관용이 허용되고 있었고, 절대적인 왕권보다는 이들 귀족들의 자치권이 크게 행사되고 있는 곳이었기에 아르나우와 같은 신흥자본주의자들의 등장이 가능했다. 따라서 카탈루냐 민중들의 힘으로 ‘바다의 성당’이 건축되어지는 것을 통해 바다의 성당을 하나의 건축물로서가 아닌 카탈루냐 지방의 자본주의의 형성과정을 나타낸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 있다.

2-2. 봉건시대 균열을 일으키는 자유인의 광기

당시 봉건제와 왕권이 지배하던 시기, 성당은 베르나프 가족의 디아스포라성이 더해지면서 동일적 성격에 균열이 가고, 이종적 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바다의 성당』에서 서로 다른 두 개념이나 집단이 만나는 지점인 경계 공간이 디아스포라 가족이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주에게 납치된 부인을 찾아 나섰다가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르게 된 베르나프는 이방인이자 경계인이지만 동시에 자유인으로 살겠다는 이상을 실현하려는 잠재적 시민의식을 느낀다. 당시 소작농들의 이러한 바람과 현실은 비록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지만, 소설적 공간이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져서 형상화된다. 그 하나는 주인공 베르나프 가족이 동경해온 신흥부르주아적 시민 질서가 구현된 공간으로 바르셀로나의 시민사회의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모습이다. 즉, 평등성이 지배하는 공간이자 질서의 토대가 되는 공통의 장소로서의 공간이다. 또 다른 공간은 이들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처벌, 감시하려는 이종적 공간이다. 즉, 농노가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귀족의 폭정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공간이 그것이다.

베르나프는 바르셀로나에서 1년을 거주할 경우에 자신의 살인자 누명을 벗고 자유인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그의 누이를 찾아가지만, 베르나프에게 돌아온 것은 신흥에서 귀족으로 발돋움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힌 처형의 냉혹한 눈초리였다. 베르나프가 바르셀로나로 이사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던 ‘자유인에 대한 이상’은 당시 봉건군주제가 표방하던 균질적인 질서를 추구하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억압당한다. 그의 처형 뿌익은 베르나프와 아르나우를 자신의 가족공동체에 소속시키기를 꺼려하며 자유인으로서의 꿈을 짓밟아버린다. 베르나프가 아버지로부터 받게 될 자신의 상속분까지 포기하면서 누나와 처형이 농노로부터 벗어나 자유인으로 살아갈 자산을 마련해주었건만, 뿌익은 귀족에 편승한 봉건영주제의 질서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베르나프까지도 그 질서 속에 결박시켜 노예로 전락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는 이러한 균질성에 균열을 일으키는 공간으로 헤테로토피아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봉건적 질서를 훼손하고 균열시키는 이들에 대한 강력한 배제와 격리의 장소들도 아울러 공존한다. 『바다의 성당』에서 간통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는 조아네프의 어머니가 갇혀있던 헛간, 불평등한 곡물배급과정에 저항하여 폭동을 주도한 죄목으로 공개적으로 처형당하는 광장, 종교재판으로 인한 유대인 하스다이의 공개 화형장은 봉건영주들이나 군주들이 가부장제나 봉건제 등 기존의 균질한 질서에 저항하고 이탈하려는 자들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공간이다. 반대로 자유인의 정체성을 쫓아가던 베르나프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공간들은 구태의연한 봉건적 관습에 균열을 일으킴으로써 이제껏 그 공간을 규정해온 기존 질서를 훼손하는 헤테로토피아의 공간이 된다.

푸코는 권력이 단순히 권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의무나 금지로서 행사되는 것이 아니다. 권력은 그들을 운용하고, 그들에 의해 전이되며 그들을 통해 전달된다. 권력은 그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그들은 권력의 지배력에 저항한다. 따라서, 형벌이나 규율이 신체에 부정적

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공개적인 사형 집행이 죄수와 군중이 욕설을 퍼붓고, 경우에 따라서는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권위를 뒤엎는 기회가 된다고 하였다.(호록스 2003:117)

누나의 죽음으로 인해 쫓겨나서 베르나프와 그의 아들, 그리고 조아네프가 거주하고 생활하는 주거지 역시 언제 어디로든 이동 가능한 안정적이지 못한 집이었다. 이를 푸코의 헤테로토피아의 다섯 번째 원리를 떠올리는 ‘사이 공간 또는 경계 공간’과 연관 지어 고려해 볼 수 있다. 사이공간은 완전히 열려 있거나 닫혀 있지 않은, 즉 애매한 상태를 가진 공간을 의미하며, 사회의 기존 질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사실상 바깥쪽에 자리 잡고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마녀, 유대인, 무슬림 등과 같이 주류 사회 안에 완전히 속하지 못하고 경계에 머물러 있는 이들에 대한 공간적 표현이다. 어린 아르나우는 자신의 사촌들의 거짓말로 인해서 아버지가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하자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생부와 그의 자녀들의 맨발에 입을 맞추어야 하는 곤욕을 치르게 된다. 여기서 에르나우의 자존심마저 앗아간 뿌익의 저택이 갖는 공간적 특성 또한 귀족들의 기존 질서로의 진입이 막힌 담과 같은 공간이었던 것이다. 또한, 곡물창고를 털어 음식을 나누려던 베르나프에게 있어서 그의 신체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농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아르나우는 그러한 한계로 인해, 자유인이 되지 못한 아버지의 시신이 죽어서까지 귀족들에 의해서 능욕당하는 것이 싫어서 기름을 붓고 불태우는 기행을 보여준다.

‘애들아, 잘 봐둬라.’ 남작 부인의 음성이 소년의 귓전을 파고들었다. “내일 다시 오자꾸나. 교수형에 처해진 자들은 몸이 썩을 때까지 이렇게 걸어놓는단다. 물론 도망친 범죄자들 신세도 마찬가지란다.” [...] 두고 보자. 소년은 다짐했다. 언젠가는 죽어가는 당신의 모습을 보고 말 거야. 당신네 가족 모두의 죽음을..... 소년의 증오는 그들이 광장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하나님에게 맹세하건대, 저

들은 또다시 우리 아버지의 시신을 조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병사의 장화가 다시 소년의 눈앞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아버지, 아버지가 목을 맨 채로 씩어가는 모습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I, 237)

아르나우는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배고픈 자유’(I, 228)에서 벗어날 것과 뿌익과 그의 가족에게 복수를 결심하게 된다. 마침내, 신흥부르주아로서 시민군의 수장이 된 청년 아르나우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뿌익의 저택을 몰수하면서 신흥자산가의 자본주의 질서로의 편입에 성공하고, 기존 귀족들의 봉건질서를 무너뜨리고 균열을 일으키는 헤테로토피아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2-3. 가부장적 명예가 잉태한 광기의 역사

앞에서 일탈의 헤테로토피아를 떠올리게 하는 공간으로 조아네프의 어머니가 갇혀있는 헛간을 들 수 있다. 조아네프의 아버지 폭스는 아내를 간통죄로 고소하여 공개적으로 그녀에게 망신을 줌으로써 자신의 수치를 해소하고자 했다. 한편 그의 아내는 폭스의 의심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되고, 그녀가 갇혀있던 작은 헛간은 그녀가 가부장적인 사회질서를 무너뜨리고 상간을 저질렀다는 일탈의 증거를 폭로하는 장소이고, 그로 인해 지탄받고 격리당하는 처벌의 장소가 되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규정한 통치자의 권위에도 도전하는 일로 여겨져서, 권력자는 처벌을 통해 법을 무시한 것에 대한 반격을 가하면서 자신의 힘을 보여주려 했다. 결국, 형벌은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통치자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셈이다. 따라서 이러한 처벌행위는 군주의 권력을 회복시키고, 권력의 우월성을 지켜주는 보루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벌어지는 처벌이 보는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서 두려움과 경각심을 갖게 하므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같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권력에 순응하게 된

다. 결국, 처벌은 통치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방법이고, 그들의 권력을 계속 지키려는 욕망이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헛간의 공간적 표상은 중세시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형벌로 부정한 여인에게 가해진 처벌이었다는 점에서 푸코의 광기를 되새겨볼 수 있다. 푸코에 의하면, 중세에 광기와 싸움이 세계의 모든 비밀과 얽혀 있는 하나의 드라마였다고 한다. 광기의 경험을 뒤엎고 있던 것은 타락, 신의 의지, 예수의 적, 시간과 세계의 종말 등의 이미지였고, 지배적인 주제는 죽음이었다. 푸코는 인간의 광기가 죽음의 지배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데 있다고 했다. 따라서 죽음의 광경을 통해 인간이 지혜를 되찾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조아네프의 어머니 조아나는 남편의 무자비함으로 인해 평생을 헛간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다가 죽은 후에야 그토록 그리워했던 조아네프의 얼굴을 마주 대하게 된다. 아내의 죽음에도 무자비한 남편은 헛간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죽음으로 그녀는 그토록 꿈꾸던 자유를 얻게 되고, 남편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된다. 여성 위에 군림하려는 남성의 이기적이고 왜곡된 인간의 광기는 도덕과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채 죽음을 잉태하게 된다. 결국 폭스가 아내를 가둔 헛간 감옥은 여성을 강제적이고 신체적인 억압과 감시 장치에 속에 가두어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하려는 가부장적 지배 권력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이 가혹한 감시의 결과로 야기된 세상과의 단절은 결국 남편을 비롯한 남성의 억압적이고 부당한 권위에 순종할 의사가 없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피그말리온처럼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대로 조각한 여성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순간은 남성의 판타지가 완전히 실현되는 듯한 감격적인 순간이다. 하지만 신화와는 다르게, 그녀의 존재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결국 허구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순간은 잠시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즉, 통제되지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엘레디스의 단호한 결단력을 통해 가부장적인 봉쇄 및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중세

말, 유대인의 공동체와 조아나의 헛간 감옥, 그리고 창녀촌은 타자들의 목소리가 지배 문화의 텍스트 속에서 복화술의 방식으로 전해질 수밖에 없지만, 마녀의 목소리와 같이 그 울림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당시 가부장적 사회의 남성들이 여성들을, 기독교도들이 유대인들을,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이 베르나프와 같은 처지의 농노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가 분명해진다. 그러나, 잔혹한 신체형은 죄를 저지른 만큼이나 사람들의 반감을 사고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게다가 형벌을 받는 사람이 담담하게 버티는 모습이 오히려 그의 무죄를 증명하는 듯 보일 수도 있어, 큰 규모의 소요나 난동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 유대인 하스다이는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세 명의 희생자를 내어오면 커뮤니티의 존립을 허용하겠다는 왕실의 결정에 따라 자원하여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화형장에서 보여준 하스다이의 의연함은 그의 처벌을 지켜보는 유대인 뿐 아니라 기독교도들에게 감동을 준다.

아르나우는 라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바로 거기, 오래전에 성당 밑에 숨겼던 아이는 이미 여인으로 변해 있었다. 위험을 무릅쓴 채 노란 방패 표식이 달린 옷을 입고 있는 그녀는 울지 않았다.

‘우린 강해져야 해요’ 그가 기억하는 소녀가 마랬다.

‘왜? 무슨 까닭에?’

‘나를 위해서, 주세프를 위해서, 내 자식들과 주세프의 자식들이자 아버지의 손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친구 분들을 위해서.....아버지는 이미 늙었다고, 충분히 살았다고 말씀하셔어요.’

그들은 산 채로 화형식을 진행했다. 그들은 무고한 이들을 장작불 위에 세워진 기둥에 묶은 다음, 가톨릭교도의 복수를 중단하라는 누군가의 외침이 터져 나오기 전에 불을 붙였다. 아르나우는 불길에 휩싸인 친구의 모습에서 눈을 땔 수가 없었다. 피에 젖은 그의 몸이 타오르고 있었다. 돌연 그의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Ⅱ, 245)

아르나우가 투옥되고 격리되어 종교재판에 회부되었을 때, 바르셀로나의 노바광장을 메운 시민들은 당시 봉건제에 대한 반감과 귀족들의

횡포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고, 소작농과 농노에 대한 자유를 선포한 신흥자본주의자 아르나우에게 지지를 보낸다. 아르나우의 재판에서 보다시피 이 때부터는 공개처벌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감시와 은밀한 처벌로 전환된다. 대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해지던 처벌은 감옥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죄를 지은 자와 그것을 처벌하는 자 간에 벌어지는 단독 행위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처벌이 감정적인 폭군의 분노나 독단적인 결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종교재판과 같은 절차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즉, 대중은 얼마쯤은 공공연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권력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장을 잃게 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처벌 과정에 대한 상상은 처벌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이에 따른 자발적 순종을 조장시키게 된다. 또한 이러한 감시와 처벌이 이제는 한 사람의 잘못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확산되어 강자와 약자 사이의 모든 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게 되었다. 즉, 감시와 처벌이 특정 개인이 아닌 사회 구조 속에서 권력 관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중세 당시 가부장적 사회체제 속에서의 권력관계인 남성과 여성 간의 이분법적이고 수직적인 성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푸코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처벌은 단순한 개인적 감정이나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알레디스는 아르나우를 찾으러 전쟁터로 나감으로써 늙은 남편의 왜곡된 욕망에 도전했고, 엘리오노르는 자신이 귀족이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농노 출신인 아르나우에 대한 지배 욕구를 관철시키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도들은 유대인들이 페스트를 전염시키고, 기독교도들의 성체를 훼손하는 위험한 인물로 치부하고 이들이 살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를 폐쇄시키고, 감시라는 처벌수단을 통해 유대인들의 삶을 통제하려 했다. 따라서 유대인 공동체가 기독교도들에게 금지된 공간으

로 표상되었지만, 아르나우의 등장으로 인해 중세 마녀사냥의 편견과 반유대주의를 벗어나 봉건제 질서를 깨뜨리고 균열을 일으키는 장소가 된다. 이사벨 여왕은 스페인 의회로 하여금 1480년 톨레도 칙령을 반포 하여 모든 유대인에게 거주지역을 마련하게 해주고 기독교도로부터 분리되어 살도록 했다. 이러한 반유대주의 정서는 왕권의 절대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아까 유대인들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르나우가 화제를 돌렸다.

모든 유럽이 페스트가 유대인들 때문이라고 믿고 있대네.

‘아르나우가 의아한 눈빛으로 사제를 바라보았다.

제네바에서 몇몇 유대인들이 페스트를 사보이 출신의 유대인이 퍼뜨렸다고 고백하더군. 샘물예다 랍비들이 준비한 독극물을 섞었다는 거야.(Ⅱ, 18)

가톨릭 왕들은 왕국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 민족의 혈통과 신앙을 단일화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1480년 유대인 격리법 공포와 동시에 스페인 특별 종교재판소를 창설했다. 전통적인 교황의 종교재판소를 대체하는 강력한 권력의 국가 종교재판소는 유대인(마라노)의 사형집행과 재산 몰수를 목적으로 왕권 강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테루엘에서 폭동이 일어나지만 결국 2000여 회의 재판이 이루어졌고 교황권과는 상관없는 스페인 왕실과 국가의 정치적 도구로 남용되었다. 기독교도인 아르나우와 유대인 하스다이의 친밀한 관계로 인해 ‘피의 순수성’ 신화로 인한 반유대주의가 해체되는 일탈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일탈로 인해 기독교도들에게 금지와 혐오의 장소였던 유대인 공동체가 아르나우에게 대금업의 기초를 닦는 기회의 땅이 되었고, 신흥 부르주아로 살아갈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뿌익을 비롯한 봉건영주와 귀족의 패악을 차단하는 시발점이 된다. 결국, 유대인 공동체는 아르나우가 하스다이의 자녀들을 살려준 대가로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2-4. 신흥자본주의의 대두와 ‘사이 공간’으로서의 유대인

중세를 지나 르네상스시기를 거치면서 실업, 구걸 등과 같은 경제 문제가 ‘차별’이나 ‘감금’의 문제와 깊은 관련을 가지면서 새로운 노동 윤리와 도덕적 의무에 대한 생각들이 시민법과 결합되었다. 이처럼 부르주아 시대가 도래하면서 배우들이 연기로 보여주었던 광기가 사라지고 이제는 살과 피를 가진 생생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제 광기는 인간 내부에 있는 괴물이 아닌 구경거리이자 억압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바다의 성당』에서 아르나우는 자신의 사촌이자, 아버지 베르나프를 죽음으로 몰고 간 뿌익과 그의 가족에게 아버지에 대한 원수를 갚기 위해 고리로 그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고 신발도 신기지 않은 채 쫓아낸다. 여기서 가난한 거지가 되어버린 뿌익과 그의 가족들은 바르셀로나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쫓겨나는데 이 역시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옮겨가면서 봉건제에서 부르주아 시민사회로 나아가는 바르셀로나에서 노동 윤리와 상도덕에 대한 의무를 어긴 이들에 대한 비판을 보여주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다.

신흥자본주의에 접하게 된 바르셀로나 시민들은 유대인을 둘러싼 온갖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이 기존 질서에 대한 전복적인 힘을 봉쇄하기 위한 위장에 불과했음을 알고, 자본주의자의 악마적인 욕망을 다스리고 통제해야 한다는 강력한 봉쇄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중세 카탈루냐 지역에 자본주의가 자리 잡으면서 상인을 중심으로 하는 중산층이 발달하게 된다. 중세 카탈루냐 지역이 자본주의로의 발달이 빨랐던 이유는 여러 가지 역사적, 경제적, 지리적 요인에 기인하는데, 지리적으로 카탈루냐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여 해상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상업과 금융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우리는 모든 곳에서 거래를 합니다. 까스피야, 프랑스 플랑드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지중해를 통한다는 뜻이

지요. 시장에 나오는 상품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 영국, 플랑드르에서 직물을 구입하는데, 그중에서 최상의 천은 틀루즈, 브루하스, 말리나스, 비라헤스 등에서 생산됩니다. 반면에 우리 까탈루냐는 아마포를 판매하지요. 또 우리는 청동과 황동도 사들이고, 오리엔테, 시리아, 이집트에서는 향신료를 ……’(II, 61)

또, 바르셀로나를 포함한 주요 도시들이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자본주의적 경제 구조가 형성되었다. 정치적으로 카탈루냐는 아라곤 왕국의 일부로서 비교적 독립적인 정치 체제를 유지하며 경제적 자율성을 누렸고, 이는 지역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회적으로 중세 카탈루냐는 농업 중심의 봉건제보다는 상업과 금융을 기반으로 한 경제 구조로 전환하는 데 유리한 사회적 환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은의 유통과 깊은 관련이 있다. 스페인에서 들어온 은이 유럽의 경제 질서에도 영향을 미치며 자본주의 발달에 주춧돌을 놓았다. 스페인을 통해 들어온 아메리카 대륙의 은은 유럽에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유럽의 은 가격이 폭락하고 물가가 폭등하는 가격혁명이 일어난다(이동민 2025:29).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삶을 살았을 하층민의 고통을 가중하지만, 근대 자본주의 발전의 견인을 의미했다.

(은의 유통으로) 국제무역의 규모와 빈도가 눈에 띄게 증가함에 따라 자본의 이동과 규모 역시 커졌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고 확대되면서 중국적으로 근대적 자본주의가 등장하고 자본주의 경제 질서가 확립되었다. 예나 지금이나 기축통화는 국제무역의 기준으로 작용하니 기축통화 보유량은 무역, 나아가 세계경제 질서를 주도할 힘을 의미했다.(이동민 2025:28)

중세후기부터 해상무역이 활발했던 서유럽에서는 은의 유통이 상공업과 무역 같은 경제활동은 물론 화폐경제 발전까지 촉진했다. 그러면

서 원양 무역과 해상무역 네트워크의 확대도 더욱 탄력을 받는다. 또한 은이 대폭 증가하면서 상업과 무역이 활발해지고 상업 및 무역 활동을 통한 이익도 눈에 띄게 커졌기 때문에 상업도시의 발달로 이어졌고 장원에서의 농업생산이나 지대를 경제적 수입원으로 삼던 봉건귀족의 경제력을 약화시킨다. 이로써 중세 유럽의 봉건 경제는 상업자본주의 경제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다(이동민 2025:35).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안토니오와 『바다의 성당』에 등장하는 아르나우의 자형 뿌익의 몰락이 이를 잘 드러낸다. 당시 뿌익은 안토니오 처럼 상선단을 거느린 재력가로서 집을 사느라 막대한 돈을 빌리게 된다. 그런데 그의 상선단이 지중해에서 폭풍을 만나 전멸한 바람에 기한 내에 아르나우의 돈을 갚지 못해 아르나우에게 집과 전 재산을 몰수당하게 된다. 뿌익 뿐 아니라, 『베니스의 상인』의 안토니오 같은 재력가도 해난 사고를 당하면 순식간에 전 재산을 잃고 빚쟁이로 전락해 쫓기는 신세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뿌익의 전 재산을 몰수하게 된 아르나우는 블라프 광장의 소요 사태를 떠올리며 입에 풀질할 양식을 요구하던 이들의 고통과 절규로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그 자(뿌익)는 주목받지 못했던 자기 신분에 대한 강박증에 걸려 있어. 단순한 도공 시절에는 믿을 만했는데 지금은 영 아닐세, 그자는 자신의 주제를 망각하고 목적을 좇아 귀족과 결혼했지만.....” 귀족들은 호방하고 명예를 지키기도 하지만 타인에게 지시하고 타인 위에 군림하는, 나아가 타인을 몰락시키는 존재로 태어났지. 그에 반해 뿌익은 오로지 금력으로만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위인일세, 그자의 딸자식인 마르가리다의 지참금으로 재산을 탕진해서 거의 몰락 직전이야. [...] 하나만 잘못되면 모든 게 무너지고 지불 기일조차 못 지킬 것입니다.” “그 집안의 채무를 거둬들이세요. 난 그자의 채권자가 되고 싶지만, 그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원치 않소. 그 자가 움직이는 사업 하나를 건드리시오. 아니, 하나가 아니라 몽땅 다! 난, 그자들이 내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걸 원치 않소.”(Ⅱ, 89)

이처럼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획득하고도 과다한 부채로 몰락한 해양 대국 스페인의 운명은 빛 때문에 파멸한 뿌익으로 대표된다고 하겠다. 여기서 해상무역 네트워크는 자본의 증식을 불러일으킨 신용 혁신으로 그 구조가 탄탄해지면서 자본주의가 도약하는 데 일조를 하게 되고 신용 혁신을 가져온 주체는 자본주의 경제의 선배 격인 스페인 지배에 반기를 들며 치열한 독립전쟁을 불사한 네덜란드였다. 그리고 이 네덜란드의 자본주의 발달에 이바지한 주체가 스페인에서 환전업을 담당했던 유대인들이었다.

기업을 조연에 아르나우는 해상보험 산업에 전념했다. 당시 카탈루냐는 제노바, 베네치아 혹은 피사와는 달리 그 사업에 뛰어들든 초보자들에게 천국이면서도 기업이나 아르나우처럼 용의주도한 상인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카탈루냐 속령의 금융제도는 궤멸 상태였는데,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빠른 수익을 쟁기기에 급급한 채 대부분이 상품의 가치를 터무니없이 부풀리거나 해적들의 동향을 입수하기도 전에 선박과 화물을 내보낸 반면, 기업과 아르나우는 선박의 상태와 항로에 대한 안전을 검토하고 환전상 시절에 거래했던 해외 대리점망을 십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에 성공적으로 일으켰다.(Ⅱ, 433)

스페인은 당시 다양한 전선에서 싸우느라 바빴던 까닭에 은을 사실상 구경도 못하고 전쟁 대금으로 지불해야 했다. 스페인은 은에 대한 일체의 통제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대신 스페인 은화를 통제할 것은 제노바 상인들이었고 이들은 노예무역에도 관여하면서 막대한 부를 형성하기에 이른다(카를로 2016:108). 신대륙에서 금은이 대량으로 들어왔지만, 화폐의 주조로 물가상승을 초래했고 화폐는 유럽 각국으로 퍼져나갔다. 스페인에서 추방된 유대인은 플랑드르의 안트워프와 브뤼헤로 향했다. 그리고 일부는 그들을 반겨주는 오스만 제국으로 향했고 나머지는 이탈리아와 북아프리카로 이주하였다. 부동산을 쌓길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저당 받은 보석류를 갖고 추방당하는 바람에 안트워프와 암

스테르담은 보석시장으로 자리 잡히게 되었다. 그리고 오스만제국에 들어간 유대인들은 전쟁에서 잡혀온 스페인 기독교도 노예를 매매함으로써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네덜란드의 자본주의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홍익희 2016:46).

전쟁이 3개월째 들어가면서 기염이 내심 절망에 빠질 때쯤 뜻밖의 소식이 들렸다. 네 척의 상선이 한꺼번에 바르셀로나에 입항한 것이다. 마요르카에서 전투가 벌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그곳에서 선원과 상인들은 마요르카를 피해 공작령의 두 번째 도시인 빠르게 난에 노예들을 풀었다. 그들은 무어 인이 지시한 대로 아르나우의 사무실이 아닌 까르데스 거리에 곡물 거래소에서 수익의 4분의 1을 제외한 환어음을 건넸다. 그야말로 엄청난 금액이었다. 페스트와 전쟁으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까탈루냐에서 노예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것이다.(Ⅱ, 71)

기염은 아르나우 몰래 노예무역을 하여 부를 쌓게 되었고, 그 돈을 아브라함 레비라는 유대인 이름으로 명의를 바꾸어 아르나우의 채권자인 체 하여, 레비가 아르나우의 채무를 포기하게 하여 종교재판소가 아르나우에게 진 빚을 탕감시켜준다는 조건으로 협상을 벌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가 봉쇄당하고 전멸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아르나우가 나서서 왕실과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거래가 이루어진다. 아르나우는 성체를 모독했다는 유언비어로 유대인 공동체가 전멸할 위기에 처하자, 아르나우는 왕자를 만나서 3만5천 파운드에 유대인 세 명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데에 합의하게 된다. 유대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왕자와의 협상에서 아르나우가 들고 나온 것은 유대인의 경제력이었다. 그는 유대인들을 추방시킬 경우, 왕실비용과 전쟁비용을 충당해줄 유대인들의 부재로 “올해 무역은 엉망이 될 테고, 그 손해를 우리가 몽땅 안게 될 거요.”(Ⅱ, 238)라고 협박하고 유대인 공동체를 지켜낸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성체의 모독이나 우물에 페스트균을 퍼뜨렸다는 등의 유언비어에 휩쓸려 기독교도들의 혐오의 대상이 된다. 왕실에서 전쟁비용과 왕실 기타 비용 등으로 고리대금업에 종사하는 유대인들에게 막대한 차관을 빌려 쓴 뒤, 왕실에서 그들의 차관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것이다(Ⅱ, 41). 바꾸어 말하면, 왕실과 귀족, 그 누구도 유대인의 고리대금업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이후, 1480년 이래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 17만 명이 한꺼번에 추방당하면서 스페인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고급 인력들이 빠져나가고 주요 상업도시의 집세와 가게 세는 반으로 폭락하고 바르셀로나는 은행들이 대거 파산하게 된다(홍익희 2016:41). 인구의 6.5%가 유대인이었던 아라곤 왕국은 금융업과 상업이 몰락하다시피 타격이 컸다. 고급 두뇌와 핵심 인재의 유출로 이베리아 반도의 생산과 유통 기반이 무너지고 내수 부진과 국제교역의 감소는 스페인 경제를 피폐하게 했고 국고수입의 감소와 직결되었다.(홍익희 2016:51-52).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해볼 때, 아르나우와 같은 신흥자본주의자의 등장을 가능케 했던 유대인 공동체의 존재는 비록 ‘사이 공간’에 자리잡고 있었지만, 이러한 바깥의 공간, 헤테로토피아가 카탈루냐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바다의 성당’을 가능케 했다고 사료된다.

Ⅲ. 나가면서

중세 스페인 사회가 표상하는 관점이 관철된 균일성에서 벗어난 공간으로서 ‘바다의 성당’을 들 수 있다. 성당은 왕과 교회가 권위를 내세워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성당을 건축할 때, ‘바다의 성당’은 민중들이 나서서 귀족들이 희사하는 막대한 양의 현금 대신 노동력을 바치며 정성 어린 그들만의 성당을 만들었다. 아르나우를 비롯한 집꾼들의 일

원은 비록 귀족은 아니었지만, 자신들만의 규율을 만들어 성당에 바쳐질 신체와 영혼의 성스러움을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로 인해 바다의 성당은 귀족이나 왕족이 아닌, 민중들에게 차별화된 일탈의 공간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했던 아르나우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그녀의 손을 만지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던 조아네뜨는 조안나 성모상을 어머니로 여겼다. 여기서 그들이 만난 어머니는 초야권으로 영주의 성적 노리개로 전략한 매춘부도 아니었고, 가족과 사회로부터 감금당하고 격리된 간음한 여인도 아니었다. 그들이 만난 어머니는 성모 조아나의 성스럽고 정화된 이미지의 여인이었다. 푸코에게 있어서 비도덕적인 광기가 하나의 부도덕, 나아가 가부장적 사회전통이나 질서를 위협하여 통제받아야 할 무질서의 표상이었다면, 부도덕한 광기의 표상으로 처벌당하는 여인들이 성녀 조아나로 동일시될 수 있었던 것은 ‘바다의 성당’이 가부장적 질서로부터 벗어나 종교적 균질성에서 이탈한 이중적인 공간이기 때문이다.

『바다의 성당』에 등장하는 다양한 공간들, 종교재판소와 감옥, 성당의 지하납골당, 유대인 공동체와 유대교회, 조아네뜨 어머니가 간혀있던 헛간, 및 엘리오노르의 집은 종교적인 규율과 탄압, 감시와 처벌, 성적인 일탈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중성을 배태한 공간성으로 『바다의 성당』의 내러티브에 역동성을 부여하고 있다.

■ 참고문헌

- 이동민(2025), 『지리로 다시 읽는 자본주의 세계사』, 갈매나무.
- 허경(2023), 『미셸푸코의 광기의 역사 읽기』, 세창미디어.
- 홍익희(2016), 『홍익희의 유대인 경제사4(스페인 제국의 영광과 몰락-중세경제사 下-)』, 한스미디어.
- 일데폰소 팔코네스(2007), 정창(웁김), 『바다의 성당』, 대교베텔스만.
- 미셸 푸코(2024), 이상길(웁김), 『헤테로토피아』, 문학과 지성사.
- _____ (2023), 이상길(웁김), 『권력과 공간』, 문학과 지성사.
- _____ (2016), 오생근(웁김),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 _____ (2003), 이규현(웁김), 『광기의 역사』, 나남출판.
- 카를로 M. 취플라(2016), 장문석(웁김), 『스페인 은의 세계사(1500~1800년 아메리카의 은은 역사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미지북스.
- Chris Horrocks(2003), 이지영(웁김), 『하룻밤의 지식여행』, 김영사.
- Borges, R. Silva(2018), R.J.C., Alves, L. C., Araújo, M. F., Candeias, A., Corregidor, V., and Vieira, J., "European silver sources from the 15th to the 17th century: The influx of "New World" silver in Portugese currency." *Heritage*, I, 454.
- Broadberry, S. and Gupta, B.(2006), "The early modern great divergence: Wages, pric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Europe and Asia, 1500-1800," in *Economic History Review*, 59(1), 3-27.
- Fernández-dePiendo, N.(2018), "Global commodities in early modern Spain, " in *Global history and New polycentric approaches: Europe, Asia and Americas in a world network system*, Eds. M. P. Garcia and L. de Sousa, 292-318. Singapore: Palgrave Macmillan, 293-308.
- Flynn, D. O., and Giraldez, A.(2008), "Born again: Globalization's sixteen-century origins (Asian/global versus European dynamics)." in *Pacific Economic Review*, 13(3), 360-362.

Gerber, Jane S.(1992), *The Jews of Spain*. New York: The Free Press.
67.

Permanency Ugartemen Permanenc A.(2014), "Opium after the Manila galleon: The Spanish involvement in the opium economy in East Asia (1815-1830)." in *Investigaciones de Histoira Económica-Economic History Research* 10(3), 157-163.

❖ ABSTRACT

The Spatial Knowledge of Heterotopia Embodied
in the *Cathedral of the Sea*

Lim, Juin
Seoul National University

According to the six characteristics of heterotopia, meaning Foucault's boundary space, we analyzed the symbolism of places in *Cathedral of the Sea*. To this end, we examined how the meaning of madness composed in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had changed in each of the Middle Ages and Renaissanc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Jews and women targeted in witch hunts are heterotopic spaces that threaten traditions. They deviated from medieval Christian society and patriarchal social order. The religious court, prison, cathedral's underground scapegoats, Jewish communities, and public wreaths confirmed that religious discipline and oppression, sexual deviation and monitoring and punishment thereof, and spatiality embedded in heterogeneity between feudal aristocrats and serfs and between monarchy and citizens gave dynamism to the novel's narrative, showing the formation process of emerging capitalism and civic spirit from the Middle Ages to the Renaissance.

Keywords: heterotopia, madness, Michel Foucault, internal space, witch hunt, Jews, currency exchange

■ 논문투고일 : 2025. 05. 10

■ 심사완료일 : 2025. 05. 31

■ 게재확정일 : 2025. 06. 09

